

# 자동차

Sector Issue Brief 2025. 2. 24

## 현대차-GM 협력, 관세 리스크 완화

### Check Point

- 현대차그룹-GM 협력 강화
- 3,400~3,700 억원 관세 부담 완화
- 불확실성 해소에 베팅할 시점

| Analyst 이병근 | bglee@ls-sec.co.kr

### 현대차-GM 생산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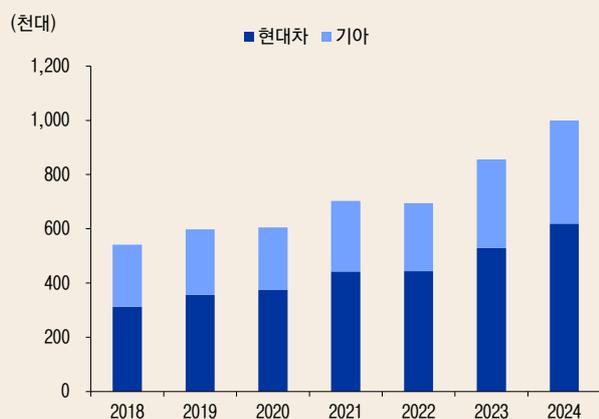
현대차그룹과 GM은 작년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다음 달 글로벌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1차 포괄적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GM의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활용해 CKD(반제품조립) 형태로 차량을 생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 이를 통해 자동차 관세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당사는 '변화에 맞서라(2025년 연간 전망, 24/11/25)' 자료를 통해, 관세 10% 부과 시 현대차 2.7조원/기아 1.6조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언급했다. 다만, 기아의 경우, 멕시코산 관세 25% 부과 시 2.2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GM 공장을 통해 약 10만대를 추가로 현지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는 3,400억원~3,700억원 수준의 관세 부담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GM 공장을 이용한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GM은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1) HEV/EV 기술 공유, 2)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개발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과 GM의 협력 범위가 HEV/EV 기술 공유까지 넓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1) 미국 전동화 공장을 갖춘 현대모비스, 2) 하이브리드 캐니스터를 납품하는 코리아에프티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에 베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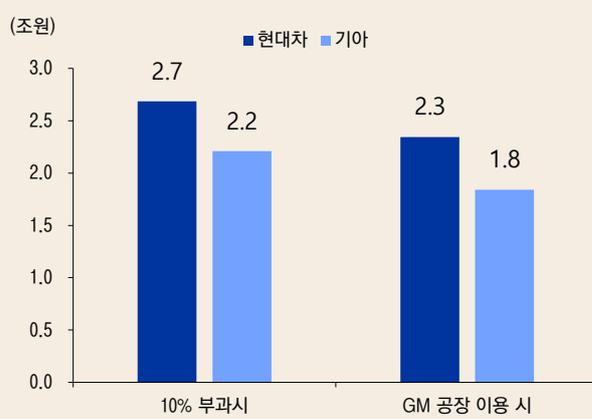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완성차 중심으로センチ멘탈은 악화된 상황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PER은 4배 미만, 관세로 인한 수익성 축소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GM 공장 활용 같은 관세 축소를 위한 대응책은 계속 나올 것이고,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주가 반등을 기대해보기 좋은 시점이다.

그림1 현대차그룹 미국향 수출 대수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관세 부과 시 이익 감소 영향



자료: 현대차, 기아,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GM 미국 현지 공장에서 10만대를 생산한다고 가정

그림5 GM 미국 생산량 및 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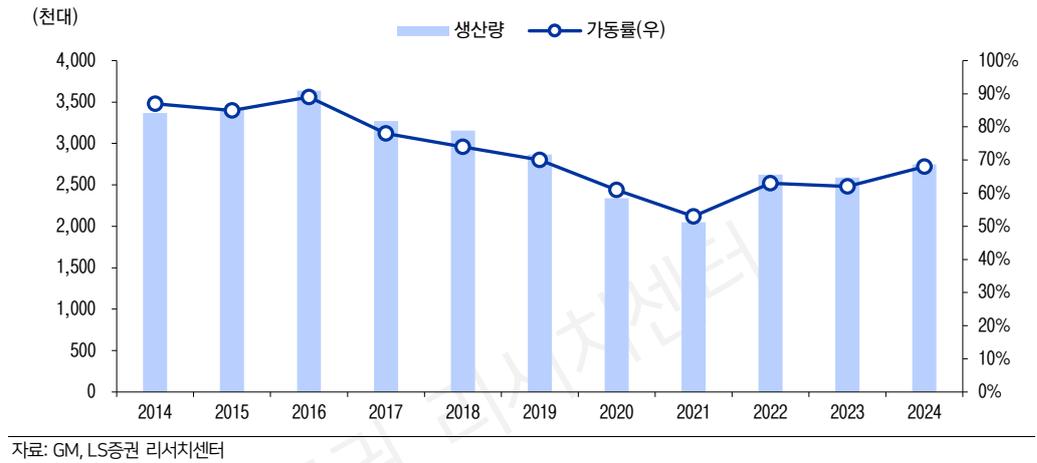


그림6 현대차 미국 소매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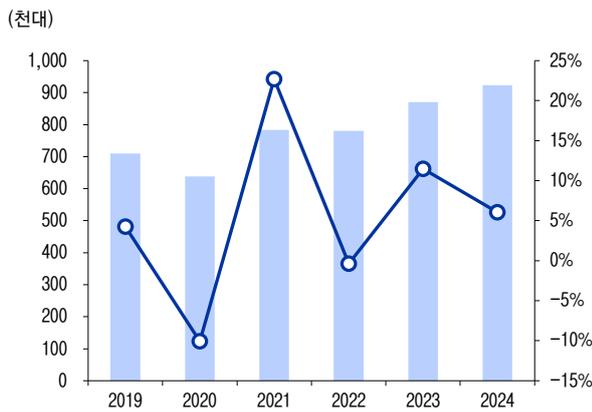


그림7 기아 미국 소매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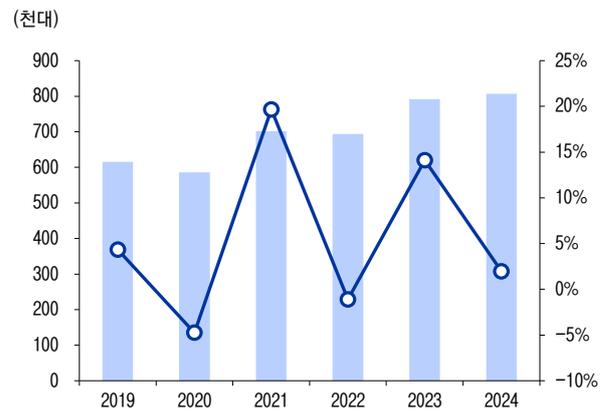


그림8 현대차 12M Fwd P/E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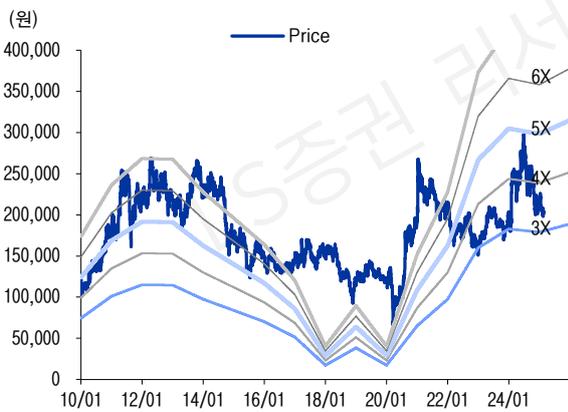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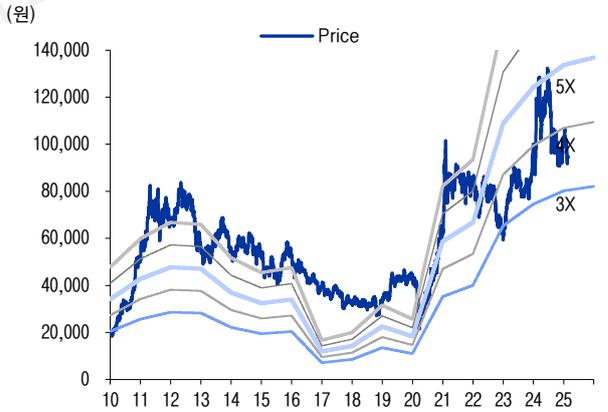


그림9 기아 12M Fwd P/E Band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병근).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2.4%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Hold (보유) Sell (매도)	-15% ~ +15% -15% 이하 기대	7.6%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 1 ~ 2024.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